

전염성 간염에 의한 피해 최소화 방안

편집부

1. 서언

올해들어 오리사육농가들은 새끼오리 때 폐사율이 높아지면서 농장의 생산성이 크게 저하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입이 중지됐던 중국산 가금육 수입이 재개되어 저가의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국내 오리업계 현실에서 이같은 질병에 의한 폐사율 증가는 사육농가의 경영소득저하는 물론이고 국내 오리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끼오리때 사육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전염성 간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육농가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현황

오리사육농가에서 폐사율을 줄여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어느농장을 막론하고 공통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리의 폐사율을 줄이는 문제는 입식되는 새끼오리의 건강도 즉 품질, 질병, 영양, 관리상태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폐사율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농장의 육성출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화장의 건강한 새끼생산에서부터 수송, 사육농가의 올바른 사육관리에 이르기 까지의 관리상태가 잘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최근 오리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새끼오리의 폐사율 문제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점검돼야 할 것이다.

현재 오리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의 대부분은 새끼오리 입추후 10일령 전후에서 다발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새끼오리의 폐사율은 적게는 5-10%, 많게는 20-70%까지 폐사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폐사되는 오리의 증상은 갑자

기 머리를 뒤로하고 쓰러져 손 쓸 겨를 없이 죽어가며 폐사일령도 3일령부터 발생되어 10일령까지 다량의 폐사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증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또 업체에서 시험중인 간염백신을 주사한 농장은 폐사율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농장은 새끼오리때 20-30%의 폐사율로 고심하다 간염백신을 주사한 이후 폐사율이 1%내외로 줄어들었으며 백신을 주사하지않은 시험구에서는 종전과 같은 폐사율이 발생하였다며 농장에서 하루빨리 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3. 문제점

1) 건강한 새끼생산을 위한 종오리 부화관리의 문제점

건강한 새끼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질병에 감염되어 있지 말아야 하고 부화장역시 철저한 위생점검으로 질병감염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사육농가의 질병피해 최소화외 제1단계가 건강한 새끼오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며 특히 종오리 사육농장과 부화장이 질병에 감염된 새끼를 생산한다면 이를 입식한 농장의 피해는 물론이고 이같은 질병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오리사육장과 부화장의 위

생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질병예방 및 건강한 새끼생산을 위한 부화장들의 위생관리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제도적인 관리또한 미흡한게 사실이다.

이는 부화장들이 새끼생산을 위한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고 있는데서 엿볼 수 있다.

다시말해 건강한 새끼생산을 위해서 부화장들이 일정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따른 종오리의 위생점검이든지 부화장의 위생점검에 의해 질병위험성을 체크하고 있는가 이다.

국내 대부분의 부화장은 이같은 질병위생에 대한 자가체크에 의해 종오리 및 부화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지않고 있다.

이같은 상태에서 건강한 새끼오리 생산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2) 새끼오리 분양시의 문제점

부화장이 자가체크리스트에 의해 종오리,부화장을 위생적으로 점검하여 대처한다해도 현재와 같이 사육농가에서 부화장으로 새끼오리를 분양받으러 가는 상태에서는 위생적인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또 병아리를 운송하고 폐기된 일회용 종이상자에 담아 새끼오리를 운송하거나 소독되지않은 플라스틱 상자에 종이만 바꿔 새끼오리를 운송하는 시스

템은 위생적인 사육농장에 질병을 전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밖에 일정한 소독장치 없이 새끼오리 분양시 이농장 저농장을 한꺼번에 분양하거나 여러부화장에서 생산된 새끼를 입식분양하는 일 역시 질병전파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리분양시 행해지고 있는 이 같은 분양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3) 사육농장의 위생관리 문제점

아무리 위생적으로 건강한 새끼오리가 입식된다고 해도 사육농가에서 관리가 잘되지 못한다면 농장의 질병에 의한 피해는 줄어 들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육농장들은 질병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가 소홀하며 의식또한 매우 낮다.

사육관리가 매우 열악한게 국내 오리 사육농장들의 현실이라해도 체계적인 질병예방을 위한 관리가 이뤄지면 상당부분 질병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오리사육농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육추시 청소와 소독을 한다해도 올바르게 못해 효과를 높이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육추장과 사육장 관리가 별도로 이뤄져야 하지만 분리없이 관리되어 육용오리실내의 오염균이 육추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 원인균이 내재하고 있는 경우 언제든지 발병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외부로부터 질병유입을 차단키 위한 기초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상태에서 출입자 및 출입차량

이 마음대로 출입되고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질병유입에 의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음을 의미한다.

3. 대책

1) 종오리 및 부화장의 대책

일단 부화장은 종오리와 부화장의 위생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생점검 체크리스트는 전문가와 상의하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체크해 나간다.

또 정기적으로 종오리에 대한 질병감염을 체크하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부화장역시 같은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토록한다.

새끼오리 분양시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하는 경우 부화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거하여 소독하고 소독된 상자만을 부화장에 유입시켜 새끼오리를 담아 분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일회용 종이상자를 이용하는 경우 병아리를 담았던 상자를 재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새 상자를 이용하는 경우 분양농장에서 이용후 폐기토록 한다.

새끼오리 분양시 모든차량이 부화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분양차량을 별도로 마련하여 분양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키 어려운 부화장은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여기서 분양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분양시 대책

농장주가 부화장에 가서 새끼오리를 분양받아오는 경우 차량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한 이후에 운송한다.

부화장이나 위탁주체에서 운송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차량을 철저히 소독하고 분양농장 내부까지 들어가지 말고 농장근처에서 농장주에게 인수토록 한다.

3) 사육농가의 대책

새끼오리 입식후 10일령 이내에서 폐사율이 높게 나타나는 농가는 우선적으로 각시도에 위치한 질병관련기관에 폐사체의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죽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질병에 대한 병성감정을 무료로 실시해주는 기관은 각지역별로 표1과 같으며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검물을 운송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치 말고 자주 이용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두자!

육용오리 사육장과 육추장내의 작업시 별도구역으로 설정하여 작업복, 작업화, 작업도구를 별도로 구획하여 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새끼오리때 폐사율이 높은 농장은 육추장뿐만아니라 육용오리 사육장등 시설 전체를 생석회로 소독한다.

최근에는 바이러스까지 죽이는 액상 소독제가 개발시판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이 소독제를 이용하여 육추장은 반드시 소독하고 새끼오리때 폐사가 많았던 농장은 육용오리 사육장까지 축사전체를 소독한다.

새끼오리때 감염되어 회복된 육용오리는 이후 폐사는 나지 않더라도 분변을 통해 이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하여 농장을 오염시키므로 이같은 조치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전염성간염에 의해 새끼오리 폐사가 많은 농장이라 하더라도 바이러스까지 죽이는 소독제의 사용으로 상당부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육농가에서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간염에 의한 폐사가 20-30%까지 많이 발생되어 피해가 큰 농장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 제약업체에서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 검사가 진행중에 있는 간염백신을 제약업체와의 협의하에 무료로 공급하여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데 비공식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끼오리때 폐사가 많이 발생하는 농장들은 필히 해당지역 정부기관에 병성감정을 꼭 의뢰하시기 바라며 병성감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기초로 간염에 의해 피해가 큰 농장들은 간염백신을 공급하여 이 백신이 상용화되기 까지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만이 농장에서 발생하는 전염성 간염에 의한 질병피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수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질병발생시 병성감정의뢰와 상황에 대해 연락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전국 가축위생 관계기관 연락처 (2000년 6월 현재)

기관명	전화번호	FAX	관할지역
농림부 가축위생과	02) 504-9438-9 02) 500-2693-4	507-3966	전국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방역과 바이러스과 해외전염병과	031) 467-1700 031) 467-1942-5 031) 467-1782-9 031) 467-1856-9	467-1955 467-1797 449-5882	전국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02) 570-3430-9	570-3311	서울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051) 331-0094	338-8266	부산
대구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053) 764-0104	768-0446	대구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032) 575-7738-9	576-7785	인천, 강화 웅진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062) 571-0498	571-0497	광주
대전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042) 863-6295-6	863-6294	대전
울산농축산과축산계 본소	052) 229-3142 031) 294-6762	229-3149 294-6764	울산, 언양 수원, 안양, 안산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화성
경기도 동부지소	635-3680	636-3676	성남, 하남, 여주, 광주, 이천
축산위생 서부지소	031) 985-4020	985-4028	부천, 광명, 고양 파주, 김포
연구소 북부지소	874-2804	874-2805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동부지소	593-4011	593-4012	남양주, 구리, 가평, 양평(마석)

기관명	전화번호	FAX	관할지역
강원도 본소	243-9580	243-9584	춘천,철원,화천,양구
동부지소	647-6465	647-6466	강릉,동해,삼척,태백
축산위생 연구소 남부지소	033)761-1890	761-1890	원주,홍천,횡성
중부지소	332-6926	333-5302	영월,평창,정선
북부지소	636-8582	636-8582	인제,고성,속초,양양
충청북도 본소	220-5272	220-5273	청주,청원
축산위생 연구소 북부지소	043)853-5500	853-4125	충주,음성
제천지소	642-5104	644-9110	제천,단양
남부지소	743-4453	740-3566	보은,옥천,영동
가축위생연구부	631-3091	631-3092	보령,청양,홍성
충청남도 아산지소	548-2950	548-2951	천안,아산
보건환경 연구원 공주지소	041)881-0127	881-0129	공주,금산,연기
통합지소	352-4056	352-4055	예산,당진,서산,태안
부여지소	833-8611	833-8610	논산,부여,서천
전라북도 본소	220-6500	220-6511	전주,완주,김제,부안
축산진흥 연구소 남원지소	635-5777	635-5778	남원,임실,순창
정읍지소	063)535-3526	535-9118	정읍,고창
익산지소	834-4918	834-4929	군산,익산
장수지소	352-9876	352-9877	무주,진안,장수
전라남도 본소	062)941-2577/8	941-2576	나주,장성,담양,곡성
축산기술 연구소 동부지소	061)755-6396	751-1045	순천,여수,여천,구례,승주,광양
남부지소	432-8938	433-7900	강진,영암,해남,완도,진도,장흥
경상북도 본소	054)326-0011/3	326-0014	구미,칠곡,군위,성주,고령,경산 영천,청도
가축위생 시험소 북부지소	054)821-9882/4	821-0556	안동,영주,의성,청송,영양,봉화
동부지소	748-6624	748-6685	경주,포항,영덕,울진,울릉
서부지소	533-1751	532-4945	김천,상주,문경,예천
경상남도 본소	053)382-7217	758-7927	진주,사천,산청,하동,함양,남해
축산진흥 연구소 동부지소	284-8188	382-8015	울산,밀양,양산
중부지소	931-3245	284-8189	창원,마산,진해,김해,합안
북부지소	646-4395	930-3518	합천,거창,의령,창녕
남부지소		645-5052	통영,거제,고성
제주축산진흥원	064)741-3554	741-3572	제주
가축위생시험과			